

##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구은정\*\*

### 초 록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밝혀낸 기존연구는 가사노동의 정치경제적 효용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경제적 가치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공론화되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두 세대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구술자 72명의 심층인터뷰 텍스트로, 행위자가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했다. 이때 행위자가 체현한 가치란 귀납적 분석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을 인식론적 틀로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산업화세대는 “가치, 무슨 가치, 난 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라는 구술이 드러내듯, 여성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진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저발전으로 인한 전국가적 빈곤 상황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 없이는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하죠”란 구술은 몸에 체현된 가치를 드러낸다. 이에 반해, 둘째, 민주화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와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지한다. 하지만 인지와 다르게 “스스로 저는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란 구술이 밝히듯, 일상생활에서 구술자는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한편 셋째, 민주화세대는 노동으로 바빴던 부모와 부재했던 관계를 성찰하면서, 자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위안 등을 줄 수 있기를, 즉 가사노동의 정서적 가치를 욕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밝힌 가사노동 가치와 행위자가 일상에서 체현한 가치의 어긋남을, 그리고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정서적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욕구를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구술자들이 주로 가사노동 제공자로 가사노동 수혜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체현한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제어 : 가사노동, 체현된 가치, 세대, 정서적 가치, 물질적 가치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시간강사(eun2228@hanmail.net)

## I. 문제제기

근대사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주어진 역할규범, 이에 따른 성별분업은 젠더불평등의 핵심요소로 여겨졌다(김정선, 1994). 때문에 어떻게 가사노동/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는 지난한 연구주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여성들이 해왔던 ‘일’들을 근대적 노동개념으로 규정하는 가사노동 논쟁(Gardiner, 2000; Himmelweit and Mohun, 1977; Kain, 1993; Molyneux, 1979), 가사노동의 경제/물질적 가치를 환산한(권태희, 2006; 김정희, 1993; An, 2012; Budlender, 2008; Yoon, 2014) 기존연구들은 가사노동을 사적영역에서 끄집어 내 공적영역의 의제로 상정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부불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연구는(Budlender, 2008), 그런 부불노동을 주로 담당해왔던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를 국가 경제의 맥락에서 드러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을 가정, 시장, 정부, 그리고 비영리 영역으로 재구성한 돌봄 다이아몬드란 개념틀을(Razavi, 2007) 활용한 연구들은, 돌봄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 많은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을 가시화해(An, 2012), 적절한 정부정책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치란 시장에서 다른 재화로 교환되는 것이 아닌 경우, 생활에서 향유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행위자들에게 실현된다. 환산된 물질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지 못할 경우, 행위자들에게 가사노동 가치란 일상의 삶과 관계없는 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론의 장에서 인정해도, 일상의 삶에서 행위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에게 가사노동은 별 의미 없는/가치 없는 행위일 수 있다. 이때 의미/가치 없는 행위로서의 가사노동 수행은 개인과 가족의 안녕(well-being)을 간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연 온전히 물질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혹 물질적 가치에 과하게 둔 초점이 비물질적 가치를 가린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가령, 부불돌봄노동의 가치가 인도의 경우 GDP의 63%, 한국의 경우 29%를 차지하는데, 저자의 설명처럼, 부불돌봄노동의 가치가 무시할 수 없게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우선적 의미가 있다(Budlender, 2008: 37-38). 한편 시

장경제가 저발전된 곳에서 부불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곳에서 돌봄노동은 더 가치 있는 노동이란 다소 모호한 딜레마를 낳는다. 반면,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전해 부불돌봄노동의 비율이 더 줄어든다면, 이는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맥이 닿는다. 그러나 이때, 가사노동이 사회화/시장화 될수록, 가족의 개인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즉 국가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돌봄노동이 제공될 때, 각각의 돌봄이 온전히 상호 대체가능한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이런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긴 어렵다. 단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이 몸으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제공/향유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몸으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낮설다. 따라서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이 글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첫째,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이 금전적 보상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을 번영(flourishing)시키기 위해 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가사노동도 포함한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가사노동은 돌봄노동을 포함한다. 일상적인 집안 일 즉 청소, 음식, 빨래 뿐 아니라, 직접적 돌봄, 친척관계, 아이 학교 모임 등 가족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노동 등을 모두 포괄한, 네이스미스(Neysmith, 2012)의 공급노동(provisioning work) 개념과 동일하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구술자들의 이야기에서 돌봄은 대부분 가사노동과 얹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둔 기존 가사노동의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은, 돌봄에 초점을 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란 맥락이다. 이때 돌봄은 둘째,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서적 접촉제로(Himmelweit, 2007: 583),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belongingness)을 높여 개인을 번영(flourishing)시킨다. ‘돌봄’의 일반적인 목적은 인간 또는 사회의 재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이다(Sevenhuijsen, 2004: 35). 이렇듯 육체적 존재의 유지를 넘어 정서적 안정, 풍요로움과 관계되는 돌봄은 가치로서의 돌봄이다. 이때 돌봄 행위와 돌봄 가치는 구분된다. 셋째, 돌봄 행위란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몸을 씻겨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등 직접적인 행위로서의 돌봄이다. 반면 돌봄 가치란 행위에 담긴 마음, 즉 애정·관심·사랑 등을 주고받으면서

발현되어 개인을 번영시키는(flourishing) 요소다. 가령, 자기 집을 청소하는 행위는 지불가사노동자가 그 집을 청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청소란 행위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청소란 행위에 담았을 때, 청소 행위는 돌봄의 가치를 포함한다. 넷째, 이 글에서 ‘가치’란 행위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 하는데(Mead, 1967), 이때 가치는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이다(Rosso. et al., 2010). 가령 돌봄 행위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지불돌봄노동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그 노동의 대가, 즉 물질적 가치가 목적이자 동기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돌봄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돌봄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의 돌봄 행위는 이렇게 다른 가치들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의미로 행위자에게 구성될 수 있다.

한 노인 여성구술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두고 노점상을 할 때 자녀가 방과 후 집밖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놀 수 있도록 매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일하러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 한다. 이 이야기에서 구술자가 준비한 음식에는 자녀에게 물질적 영양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간접적) 돌봄노동, 자녀의 원활한 친구관계를 위한 지원노동, 방과 후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돌봄 가치) 등이 모두 얹혀있다. 주말에만 집에 들어가는 한 남성구술자는 평상시 못했던 청소 음식만들기 등 집안일을 주말에 전적으로 하면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으로 표현한다. 이 경우 구술자는 가족에 대한 돌봄/애정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가사노동을 음식만들기, 청소, 돌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는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르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지, 할애된 시간에 따라 물질적 가치를 환산하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이 향유하거나, 향유하고픈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이 연구관심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이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담는 의미, 이를 통해 가족과 나누는 관계 등이 분석초점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체현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인식론적으로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는 연구방법과 구술자들이 처한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의 서술이다. 셋째, 행위자들이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다. 넷째, 결론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이 글이 현 후기산업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한편 본 연구 구술자들이

모두 가사노동 제공자이고 두 세대만을 중심으로 했던 한계가 있다. 이에 가사노동 수혜자들 (자녀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다른 세대에 대한 후속연구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 II. 인식론적 입장

### 1. 몸으로부터의 사회학

기존 서구 철학에서 구조/행위자, 정신/육체, 남성/여성, 이성/감성 등, 세상과 존재,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대치시키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현상학, 해석학, 몸의 사회학,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 새로운 인식론적 입장이 부상하였다(김남옥, 2012). 이 새로운 철학은 외적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외적 조건에 대한 해석, 해석에 기반한 행위, 행위의 개입으로 초기 조건과 변형되는 조건, 일상에서 행위자의 반복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 규범 등을 인식론의 지평으로 호명해낸다(Bendelow & Williams, 1998; Heller, 1984; Mead, 1967; Shilling, 2004). 이렇게 행위자를 인식의 한복판으로 끌어냄으로 행위자의 “몸은 세계-내에 뿌리내리고 주어진 상황을 체험해가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평이 되는 세계에도 향한 존재가” 된다(김남옥, 2012: 295). 노령인구의 증가와 소비 (건강·미용 산업)의 중심으로 몸이 부상하면서, 생물학적인 몸 자체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가했다(Shilling, 2004: 26-33). 그러나 몸 자체에 관한 것 (about bodies)보다, 경험을 체현한 몸으로부터(from lived bodies) 사회적 현상을 이론화하는(Bendelow & Williams, 1998: 3) 인식론으로, 이 연구에서 몸의 사회학은 의의가 있다.

돌봄의 행위 돌봄의 가치와 관련해, 몸은 이 둘을 직접 체현한다. 가령, 한 끼 식사는 영양소와 칼로리로 바로 몸에서 소비되고 몸/신체/육체의 유지·발전에 도움을 준다. 한편 돌봄의 가치는, 애정·사랑·돌봄을 나누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비슷한 뇌파를 형성해 유대감을 높이거나,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고, 말초신경을 강화하며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키며(Fredrickson, 2013: 39-62), 몸에 체현된다. 즉 가치를 향유하는 순간은 사라지지만, 더 친밀해진 유대감으로 건강해진 몸으로 각자의 정서적 경험으로 몸에 새겨진다.

물론 행위자들이 가치를 향유하는 매순간을 인지하고, 몸으로 느끼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 가치는 시나브로 몸에 '체현'된다. 이때 외적 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각 세대의 경험은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고, 몸에 체현된 경험은 사회성을 획득한다(Shilling, 1997). 이렇게 획득된 사회성에 따라 개인의 행위선택/지향은 곧 집단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 작동해(Davis, 2003: 132-143), 사회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때 돌봄의 가치는 비물질적 가치다. 초기 비물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었던 돌봄 개념은 별다른 논의 없이 돌봄노동이란 어휘와 호환되고, 가치와 관계없이 돌보는 행위로 환원되었다. 또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 등으로 연구관심이 옮겨지면서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초점은 더욱 더 비가시화 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근대 모성에 기반한 성별분업과 돌봄, 사랑, 애정이란 가치들이 얹히면서, 성역할에 의해 강제되는 사랑의 가치와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가 동일시되면서, 여성주의 연구에서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는 논외되었다. 이제 초기 돌봄 이론을 버렸던 문제의식, 즉 교환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재숙고해야 한다. 이때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를 주목할 수 있다.

몸이 체현한 것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때론 행위자가 조건을 인지·성찰하기 전, 먼저 몸으로 겪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조건을 몸으로 먼저 겪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전세대가 형성한 문화 속에 태어남을 의미한다(Heller, 1984).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기 전까지 인간은 이전세대의 규범을 몸으로 우선 습득한다. 이전세대가 형성한 규범을 몸으로 반복하던 행위자는 그 반복이 자신의 인식과 어긋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Wehrle, 2016: 69), 성찰하고 행위를 (반복하던 수정하던) 다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전 세대의 규범은 유지되거나 변형된다. 그러나 생애초기 습득된 경험과 가치관은 개인의 인식과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은정, 2012: 73)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만하임(Mannheim, 1952: 179)에 따르면, 보통 17세 정도 되어서야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경험이 세대의식 형성의 기초가 되고 생애를 관통해 유지된다(전상진, 2004: 35). 개인의 생애사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체의 개별성도 무엇을 성찰하는데 중요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성찰과 행위 수정을 통해 개별성이 발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란 규범은 초기근대에서 후기근대로 흐르면서 약화된다. 그러나 이 연구 모든 구술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규범은 구술자들이 몸으로 겪은 습속이다. 이때 당연한 행위가 창출하는 가치는 대체로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다. 당연한 행위는 성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초기산업화세대는, 자녀세대를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상호작용하지만, 그들의 인식과 행위는 대체로 변하지 않고 반복된다. 이 연구의 민주화세대는 이전세대의 규범을 자라면서 몸으로 겪었다. 그러나 평등사상이 대두되는 시기 청년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가진 평등의식과 몸의 습속은 충돌하고, 행위는 (개개인 삶의 맥락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변형된다.

## 2. 가치에 기반한 경제: 다원주의 경제학<sup>1)</sup>

가치에 기반한 경제란, 기존의 일원론적 물질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착하고 향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 삶의 본질(good life)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다(Klamer, 2017). 클라머(Klamer, 2017)는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집을 예로 든다. 집은 가격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표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을 떠올릴 땐 그 공간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 그들과의 관계, 일상의 기억들,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집이란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느낀다.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얼마짜리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향유할 삶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의 가치는 얼마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과 영위하는 일상의 가치로 향유되고 몸에 체현된다. 이 가치는 물질적 가치처럼 명징하게 표현되지 않아 그동안 학문적으로도 정부정책에서도 논외 되었다. 클라머는 일상의 삶에서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포함할 때 정책 대상자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의한다.

돌봄과 관련하여, 반 스타베런(Van Stavelen, 2001)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원론적 가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경제활동으로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를 이론화했다. 반 스타베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장 영역에서 교환이란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자유의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분배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돌봄 경제(care economy) 영역에서 증여(giving) 활동으로 돌봄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각 영역에서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 세 가지 가치들을 균형 있게 향유하며 행복한

1) 구은정 (2019) p.214-221 내용 중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수정해 본 절을 구성했다.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때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돌봄영역에서 이루어진 돌봄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환산해 증명해도, 그 물질적 가치는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간호를 받을 때, 그 가치는 돌봄보다는 필요한 돌봄 행위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가치가 우선이다. 물론 시장영역의 돌봄제공자도 제공한 노동과 교환되는 화폐로 이를 경제적 독립, 즉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돌봄수혜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돌봄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가치는 앞서 서술했듯이, 외부에서 규범으로 행위자에게 강제되는 도덕률이 아니라,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현되는 윤리적 가치다(virtue ethics) (Van Staveren 2007). 이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밝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물질이던 애정이던)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고마움과 이에 따라 받은 것에 대해 기꺼이 보답하려는 마음과 행위의 발생이다(Fredrickson, 2009: 41-42).

이 글에서 돌봄 가치와 관련해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한다. 첫째, 기존에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모성을 바탕으로 여성이 주어야 할 것으로 가정된 사랑의 가치와 본 연구 구술자들이 향유하길 욕망하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 즉 돌봄 가치는 다르다. 둘째, 모든 돌봄노동이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돌봄의 가치를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돌봄노동이란 어휘는 돌보는 행위를 일컫는 것일 뿐, 그 행위로 돌봄의 가치를 향유하는 가는 다른 이야기다.<sup>2)</sup> 이를 좀 더 분명히 하면, 모성을 바탕으로 여성이 주어야 할 것으로 가정된 사랑의 가치와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의 차이는 가치 향유와 관련된다. 모성과 관련된 사랑의 가치는, 여성에게 강제된 도덕률과 유사하다.<sup>3)</sup>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사랑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그 가치를 제공자와 수혜자가 함께 향유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가사노동 제공자와 수행자 사이에서 가치를 향유할 때 발현되는 윤리적 가치(virtue ethics)다 (Van Staveren, 2007). 가령 구술자가 가족을 위해 깨끗이 청소 할 때, 구술자의 배우자와 딸이 깨끗해진 방을 보고 기뻐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술자가 행복을 느

2)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개념을 다루는 큰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3) 여성에게 강제된 도덕률은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의 담당자로 규정했던 유교주의, 근대 신여성·전문주부 담론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을 여성에게 강제했던 규범 모두를 포함한다. 참조 Koo, 2019.



끼는 순간 ‘향유’되는 가치다. 깨끗한 방은 가족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소비된다. 애정·사랑·돌봄 등 정서적 가치는 구술자와 가족이 그러한 긍정적 정서를 주고받는 순간 발현되고 향유되고 사라진다(Fredrickson, 2013: 16).

위 두 이론은, 경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시장경제는 인간 경제활동의 한 부분임을 밝혔던 폴라니(Polanyi, 2001)의 사회적경제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두 이론은 모두 인간의 경제활동이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향유하는 다른 여러 가치들을 창출한다는 것을 이론화했다. 이렇게 두 이론은 사회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뿌리를 둔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해 이 이론들은,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라는 어휘가 구분 없이 쓰이고, 시장경제만을 경제영역으로 한정하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곧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로만 제한했던 인식론적 틀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하다.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물질적 가치를 넘는 행위자가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 Ⅲ. 방법론적 특성: 연구 자료 및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

#### 1. 방법론적 특성

앞 장에서, 인식론적 입장에 관한 두 이론을 기술했지만, 이 논문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질적 연구는 이론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양적연구, 실증적 연구와 다소 다르다. 실증 연구는 주로 이론적 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주로 이론적 가정을 배제한 채, 연구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거나 (예, 근거이론 방식), 연구 자료가 말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 현상학적 방식) 접근한다(Hammersley, 1995). 그러나 이는 연구 진행과정에 관계되는 원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 구성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론을 완전히 배제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질적 연구에서 이론적용은 주로 연구 자료에 대한 해석을 더 깊게 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론이 선행되기보다 분석·해석에서 연구 자료와 쪽매붙임(patchwork)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논문 구성에서 이론은 주로 연구 자료 분석 앞에 놓여지고, 이는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상(erroneous

impressions)을 줄 수 있다(Sandelowski, 1993: 216).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이론의 역할과 적용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논문 연구결과에서 일부를 활용해, 본 논문으로 재구성했다. 박사논문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가사노동을 둘러싼 역할 규범 등에 대해 심층인터뷰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에서도 처음엔 물질적 가치와 비물질적 가치, 체현된 가치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세대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 가치를 크게 느끼는 것, 또 민주화세대에서 가치를 분명히 수치로 표현하지만, 삶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 즉 기존연구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인식했던 것과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는 달랐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인식론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앞 장의 두 이론,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활용했다.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 모두 외부에서 제시되는 가치와 구술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가 어긋난다는 점이 초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 장의 두 이론은 이론적 가정이 아니다.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치를, 여태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인식론이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세대적 분류가 제시되지만, 이것도 귀납적 분석 결과 세대에 따라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가장 다르게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해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특성과 결합해 재해석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질문을 구성하고 미리 만든 분석틀을 활용해 구술 텍스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구술자료가 이끄는 데로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질적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사노동을 다룬 다른 논문들과 다르게 젠더나 계급은 주된 분석 틀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일상의 삶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체현하는데 있어, 급격한 근대화·산업화로 두 세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각 세대 안에서 젠더나 계급 차이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세대 내에서 젠더나 계급에 따른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이를 다루었지만 부차적인 관계로 다소 명확히 드러나지 못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한 구술자의 이야기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구술자의 개별성을 서술해 구술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따로 구술자들을 가명으로 호명하지 않았다.

## 2.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박사과정 논문에 사용된 구술자료 중 자녀를 다 성장시킨 노인세대 28명, 현재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 44명의 구술자료를 사용하였다.<sup>4)</sup>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해 단독거주 여성노인 7명, 단독거주 남성노인 7명, 노인부부 7쌍을 소개받아, 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젊은 세대는 인터뷰 당시 0살에서 고등학생까지 나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가사노동을 하는 다른 조건을 포착하기 위해, 전업아내 부부 7쌍, 싱글 맘 7명, 맞벌이 부부 6쌍, 공동체 주택(co-housing) 거주자 9명<sup>5)</sup>, 전업남편 부부 1쌍<sup>6)</sup>을, 부부는 따로 개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대략 1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진행되어, 한 인터뷰는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구술로 시작해 가사노동 관련 이야기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가사노동이란 용어가 구술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가사노동에 관한 질문에 집안일로 용어를 변경해 구술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남성노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가사노동이란 용어가 산업화 시기 학문적 관심을 담아낸 용어임에 반해, 한국사회 현 노인세대들이 성장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과 동떨어진 어휘임을 함의하는 반응이다. 그에 따라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가사노동과 집안일이란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또 남성노인들의 경우 노동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본인의 삶과 별 관계없는 영역으로 해석해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노인들은 자녀 양육시기 잠 잘 시간을 줄여야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던 고단함의 기억, 그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가사노동 포함 일/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했음을 드러냈다.

4) 구술자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명시하기엔 지면관계상 한계가 있고, 구술자와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Koo, 2018 참조.

5) 마포구에 있는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거주자들을 인터뷰했다. 공동주택이 공동육아로부터 출발했음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는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와 외부 생활 조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찾아낸 대안적 가사노동 수행 방식으로 이 연구와 연관된다.

6) 전업남편 부부의 경우 구술자를 구하지 못해 1쌍의 인터뷰만 연구자료로 활용했고,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가사노동이란 어휘에 대한 거부감이 남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졌지만, 젊은 세대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령, 한 남성 구술자는 인터뷰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메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에선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을 키웠던 활동(?)을 가사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 구술자는 법조인으로 가사노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정서적 거부감이 몸으로 표현되었고, 이후 글로 명시되었다. 가사노동 가치와 관련해, 남성 노인들의 거부감은 유교주의 맥락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과 관계된다.<sup>7)</sup> 반면, 이 남성 구술자는 ‘노동’이란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를 일컫는 어휘로 다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본인의 성장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관계된다. 구술자는 이런 인식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고, 따라서 언어로 발화되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와 그 어휘의 변화, 또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수용과 거부 등도 가사노동 가치 체현과 관련해 중요한 연구주제라 생각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3.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

현재 노인세대의 본인을 위한 또는 부부만을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체현은 과거 자녀들을 양육했던 시기와 크게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텍스트 분석은 구술자들이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던 시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처음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인터뷰는, 인터뷰 텍스트 초기 분석 후,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로 재규정된다. 이는 구술자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시기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한편 가사노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 차이보다, 세대별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뚜렷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또 미리 설정된 분석틀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의 강점인 분석과정에서 연구 자료와의 상호작용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개념, 분석방향 등을(Bryman, 1984:78)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분석은 ATLAS.t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대별 카테고리별 대략적 차이를 분석한 후, 각 인터뷰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병용했다. 이때 체현된 가치와 상호작용하는 외적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과 유교사상/평등의식이 두드러졌다. 이에

7) 이는 다음 장, 초기 산업화세대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따라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구술 자료를 한국사회 정치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재분류했다.

우리사회에서 1960-70년대 20-30대였던 세대를 산업화세대, 1980년대 20대였던 세대를 민주화세대로 구분하는 담론에(황아란, 2009) 따라, 이 연구에선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로 구술자들을 분류한다. 살펴보면, 이 연구 노인세대 구술자들은 1950년대 출생한 한명을 제외하고 1930-40년대 출생해, 우리사회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다.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1980년대 출생한 한 구술자를 제외하고 1960-70년대 출생해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기 청년기를 보냈다. 정확하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구분은 이 연구 구술자들과 약간 어긋나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통의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한 세대를 구분하는 만하임(Mannheim 1952)의 세대개념에 따를 때, 이 연구 구술자들을 두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가사노동 가치 체현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은, 한국사회 압축된 근대화(Chang, 2010) 과정 속에서, 유교주의 문화, 근대적 정치체제, 그리고 저발전 경제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전근대와 근대의 얹힘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특성을 만들어낸다.<sup>8)</sup> 먼저 정치적으로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은 근대 국가의 국민이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강력한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 속에 포섭되었다(정재영, 2014; Pascall & Sung, 2007).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대가족 유형인 남성부양자가족, 즉 남성 임금노동 여성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저발전의 맥락에 놓여있었다. 정치적으로 근대국가란 외형도 극히 불완전했다. 권위주의 국가체제 아래서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시민의식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및 재산상속에서 성별 차별을 없애는(Cho, 1994), 2005년에 가부장제의 근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Nam, 2010). 따라서 구술자들에게 유교주의에 기반한 성차별은 일상에서 당연한 삶의 질서이고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다.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세대는 전국가적 빈곤상황에서 성장했다. 이는 부드런더(Budlender 2008:3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을 포함한 부불돌봄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가 가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의미한다.

8) 한국일보, “[강준만 칼럼] 비동시성의 동시성” (2006.10.17.)

<https://news.v.daum.net/v/20061017183507349?f=o>

이에 반해, 민주화세대는 본격적 경제성장으로 전국가적 빈곤에서 벗어난 시기 성장기를 보냈다. 또, 직·간접적으로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시작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역사적 경험으로 공유한다. 경제성장은 비로소 근대적 가족형태인 남성부양자가족<sup>9)</sup>이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수 있는 물질적 대를 제공했다. 민주사회로의 이행은 전근대적 이념과 결별하고 근대 가족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층을 형성했다. 이는 푸아에핑거가 밝힌, 근대 남성 부양자가족 모델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적어도 가족 중 한사람이 부양노동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회적 부와 분배, 문화적으로 새로운 이념에 호응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실재)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Pfau-Effinger, 2004). 다시 말해 이 세대가 본인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도적 측면에서 유교에 기반한 가부장제는 가족법 개정으로 역사의 유물이 되었고, 물질적 삶에서 경제발전으로 일인생계부양자모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세대는 성장기 전근대적 질서를 몸으로 겪고, 청년기 근대적 질서를 의식적 적극적으로 껴안았다. 그러나 근대질서의 정착과 후기근대 의식의 도입이 얹히는 한국사회 압축적 근대화에 직면한다. 이는 이 세대 가사노동 가치의 체현과 관련해 근대적 욕망과 후기근대 의식의 어긋남을 의미한다. 즉, 성별분업에 기반한 근대가족 질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주려는 욕망에 부합했지만, 가족 내 역할보다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하는 후기근대 의식과 (Ochiai, 2014: 210-217) 충돌한다.

#### 4. 구술자 개괄

먼저 초기산업화세대를 보면, 첫째, 여성노인들의 학력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대체로 낮고, 독거노인들의 경우 두 구술자를 제외한 여성과 남성 모두 월 10만원에서 48만 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3년 단독가구 최저생계비 5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sup>10)</sup> 즉 2011년 기준 상대적 빈곤률 48.8%, 절대적 빈곤률 36.1%인 노인빈

9) 후기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위축에 따른 남성부양자가족의 균열을 밝힌 연구들은 물론 타당하다 (강이수, 2011; 신경아, 2014). 한국에서 남성 실업률은 1990년 2.9%로 완전고용으로 여겨지는 3% 아래로 떨어졌고 1998년 아시안 경제위기로 7.8%로 올랐다. 이는 통계로 거칠게 얘기하면, 남성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 여성도 부양을 해야 했고, 결국 남성1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적절한 개념임을 의미한다.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년 8월 29일),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곤를 (윤석명 2013: 9)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단독거주 구술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부부 사례 1을 제외한 다른 노인부부의 경우 모두 자기 집을 소유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구술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던 시기, 전사회적인 절대빈곤의 조건에서 개개인의 경제적 차이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산업화세대에게 매일의 삶에서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교주의의 영향 하에서 그들의 의식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둘째, 이혼 경위와 자녀양육에서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은 차이를 보인다. 한명을 제외한 모든 독거여성노인들이 빈곤가정 출신이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초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남편이 병으로 사망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등 생애 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구술자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녀가 어렸을 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자녀가 생존한 경우 비록 경제적 지원은 못 받지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경우, 고학한 두 구술자를 제외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독거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구술했다. 본인들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거나, 다른 이유로 이혼이나 별거에 이른 후, 자녀들과의 교류도 중단되기도 한다. 특히, 이미 자녀 양육시기가 지난 후 이혼한 경우도 자녀와 교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자녀양육이라는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을 통해 아내가 수행했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재 인지한다. 이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노인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양육 시기는 가사노동 포함 온갖 일을 수행하는 부인의 노동을 당연히 여겼지만, 현재 그런 노동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민주화세대는, 26 가구 중, 7가구는 유아기 자녀를, 5가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14가구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무엇보다 44명의 구술자 중 9명이 고등학교 학력을 나머지는 대졸이상 학력으로, 이는 2011년 35-44세 인구 49% 그리고 45-54세 인구 28%가 대졸이상 학력인 (OECD, 2013:

37) 우리사회 평균과 비교해 높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곧 인적자본으로 직결되는 바, 본 연구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의 경제적 조건이 우리사회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전업남편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 민주화세대는 도시중산층이 대표적이고, 이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성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계층별 차이도 이 연구에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령, 초기산업화세대의 경우 아무리 부유한 가구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사노동 대체품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적 빈곤 하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 수행은 가정의 유지 번영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민주화세대의 경우 싱글맘 네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의 물질적 삶을 위한 가사노동 수행은 별 의미가 없다. 이미 시장엔 저렴한 가격의 가사노동 대체품이 많다. 무엇보다 현 한국사회에서 물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선 집에서 가사노동을 잘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다. 계층과 관련해 세대와 교차하면,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본 연구 구술자 표본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빈곤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신흥공업국가가 된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심계층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별 계층별로 고정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변화하는 가치를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 IV.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 1. 초기 산업화 세대: 지식·몸·담론 사이, 가사노동 가치의 어긋남

초기 산업화 세대 가사노동 가치와 실천에 대한 구술에선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 사이 모순, 그리고 담론과 동떨어진 일상이 특징적이다. 첫째, 유교적 관습에 의해 가사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인식된다. 그러나 전 국가적 빈곤상황에서, 가사노동 생산물 없이 삶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몸은 체현한다. 이렇게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은 어긋난다. 둘째,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신여성·전업주부 개념과 같은 근대적 이념들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담론이 엘리트층을 중심으



로 확산된다. 그러나 이런 담론은 대다수 구술자들의 일상에 삼투하지 못한다.

### 1) 유교적 지식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와 몸에 체현된 가치 인정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관습적 규범이, 여성과 남성의 유교적 젠더 위계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다. 유가 사상에서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로 구분하고, 이는 ‘마음의 일’과 ‘육체의 일’로 등치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은 대인으로써 마음의 일을, 여성은 소인으로써 육체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질서다 (조순경, 2001:188). 그리고 이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성별 역할분담은 남성 부양노동 여성 가사노동이라는 근대 성별분업과 다르다<sup>11)</sup>. 조순경은 (2001:188) “마음으로 애쓰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육체로 애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를 먹여 살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천하의 도리”라는 맹자의 말을 소개한다. 이런 유교 질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양자가 된다. 이때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는 근대 가사노동 논쟁에서 다루어진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개념화 하느냐와 연관이 없다. 물론 초기 산업화시대 다수는 이런 유교사상을 직접 학문으로 배우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저발전의 경제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피부양자가 되긴 어려웠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문화적 관습적 지식에 기반해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절하는 구술자들에게 내면화된다. 오랫동안 내면화된 지식은 다시 성찰해서 재인식되기 어렵다.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돈으로 환산하면,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란 질문에 대부분 여성구술자들은 “가치, 무슨 가치, 난 몰라,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남성구술자들은 “가치, 그게 뭐 가치가 있어”란 대답이 즉각적인 반응이다. 성찰되기 어려운 관습적 지식은 보통 말로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아래 남성구술자는 유교질서에 따라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내 개념으로는 가사노동 개념이 없어요. 제가 성장할 때는 가부장제의 기본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나가면 맨몸으로 나갔지 가사노동을 생각해준다, 이걸 최근에 여성들이 주장하는 얘기지.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가사노동은 뭐 가사노동*

11) 근대 성별분업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예속시켜 성차별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근대 성별역할분담은 경제적 관계보다 우선해서 젠더 위계 자체에 의해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켰다 (Koo, 2019).

*이예요. 그게 뭐 중요했습니까?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하죠.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건 노터치. 그런 건 무시, 그리고 실제 그게 무시돼야 맞아. 왜냐하면 요즘 그것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니까, 여자들이 하도 드셔서, 호적법 바꾸고 성도 바꾸고 제멋대로 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을 없애는 행위예요.”*

이 남성구술자는 1941년 아버지가 양조장을 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부터 당시 대학에 다녔던 형과 서울에서 공부했다. 본인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10여 년 전 이혼 후, 인터뷰 당시까지 혼자 살고 있고, 아들과 딸이 자주 방문한다. 그는 아들 쪽 손주가 핏줄이라 더 예쁘다고 이야기 하는 등, 가부장제 질서가 몸에 새겨져있다. 구술자의 위 구술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사노동 어휘에 대한 부정, 세상의 변화와 유교질서의 혼란, 구술자에게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 등에 대한 구술자의 인식이 얽혀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그의 몸에 체현된 가부장제 질서는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 가사노동 가치 인정은 곧 가부장제 질서의 붕괴와 맞닿고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에게 관습적 지식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는 곧 질서유지를 위한 옳은 길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회에 대한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현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은 그의 삶에 삼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평가절하해도, 그의 몸은 이미 그 가치를 체현했다. 그래 불현듯, 가치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그가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가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도 표현된다. “맨날 늦게 들어왔으니까 와서 잠만 자고 그랬지. 마누라하고 그렇게 가정적인 생활은 못해봤어요. 한마디로 불량스러운 남편이었던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한편으론 미안해요. 그래 지금 이혼은 했지만 마누라가 예뻐, 지금 보면 고맙고. 왜냐하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을 올바르게 키웠잖아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했던 아내는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온전히 책임졌고, 때문에 현재 이혼 후 혼자 사는 그를 가끔씩 찾아와 돌봐주는 잘 성장한 자녀는 온전히 아내의 공이다. 즉 아내가 수행한 가사노동의 결과로 가족이 유지되고 자녀들이 성장했다. 그리고 자녀와 교류의 순간 아내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재 구술자는 향유한다. 구술자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핵심에 그 가치가 있다.

또 그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느끼는 고단함을 통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는 몸에 체현된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당시 대학까지 나왔지만, 서울에서 살 때,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도 가사노동을 했다. “1-2 학년 때까지는 나도 밥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연탄도 갈려면 어렵잖아요. 어렸을 땐데, 그거 구멍 맞춰서 갈면서 가스중독도 돼 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서울에서 편하게 살줄 알았지만, 사실 서울 와서 고생했죠.” 그리고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 “세탁기가 돌아가지만 그걸 널고 하는 게 그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 힘드냐고 할지 몰라도 그게 일거리 보통 아니에요.” 구슬자가 직접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홀로 사는 그의 처지를 비판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는 직접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고단함도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느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현재 구슬자는 여자친구가 있고, 가끔 그 친구가 와서 가사노동을 대신 해준다. 그에 대해 그는 “틈틈이 와서 반찬해 주고, 빨래 해주고. 빨래라고 뭐지가 하나 그냥 널었다 갠다 뿐이지”라고 이야기한다. 같은 빨래이지만, 구슬자 본인이 할 때, 일거리가 보통이 아닌 일인데, 타인이 할 땐 기계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일 뿐인 것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고, 널고, 개는 같은 노동에 대해, 그는 의도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이 자기모순의 핵심인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유교사상을 실재하게 하는 동력일 수 있다. ‘다스림’이 억압적 통치가 아니라 보살피 이끌어 줌의 의미로, 이에 대한 대가가 물질적 부양이라 하더라도, 다스림과 물질적 부양이 짝을 이루면서, 물질적 부양을 위한 육체노동의 가치는 사라진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평등한) 관계이지만,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지속된다.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이 세대 구슬자 중 부유한 가족배경으로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었던 한 여성구슬자에게서도 동일하다. “뭘 돈 벌면 머리맡에 두고 쓸 거 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평생을 호강하며 살은거야, 고생, 고통이라는 걸 몰랐어”라고 이야기 하는 구슬자는 주로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회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가사노동은 ‘식모’ (유급 가사노동자)가 했다. 이에 대해 구슬자는 “집안 일이 식구도 없고, 간단하고, 뭘 할 것도 없어, 살림도 없어. 그리고 또 집에 밥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 평생을 난 일은 안했어”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에선 타인이 대신해 주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엿보인다. 남편이 홀로 월남했기 때문

에 구술자에게는 시댁식구도 없고 아들이 한명이라 가족이 단출하다. 그러나 식모와 아들을 돌보는 아이, 또 한때는 다른 아이들 세 명을 키우기도 해, 같이 사는 사람이 5-8명으로 해야 할 가사노동이 없을 정도로 단출한 가구는 아니다. 그보단 구술자가 직접 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할 것도 없는 일로 평가절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그녀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내가 먼저 음식도 맛을 보고, 내가 먼저 일을 알아야 저 사람을 시킬 수 있지, 그래야 시킬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걸 무조건 다 맡겨도 안돼. 내가 후하게 하면서도 내가 알아야 해. 그걸 모르고 시키면 그걸 조금 잘못된 거야”*라는 구술은 그녀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남성이 가장으로 여성을 다스리고, 여성의 가사노동을 평가절하 했듯이, 양반과 노비의 관계에서 노비의 육체노동이 평가절하 되었듯이, 그녀와 식모의 관계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식모의 가사노동을 할 것도 없는 일로 평가절하한다.

사실 그녀가 했던 봉사활동도 일 자체로 보면 가사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치를 담구고 영양죽을 썰서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활동은 그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비록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일이라도 여럿이 같이 하고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그녀가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유다. 또 당시 그런 봉사활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점도 그 의미를 더한다. *“돈도 모자라면 대주고 그러지, 어려운 사람은 못해요”* 남편은 구술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했다. 이런 구술자의 특별한 위치가 당시 봉사활동을 가치 있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집에서 김치를 만들고 죽을 쑤는 누구나 하는 가사노동은 그녀에게 가치 없지만, 경제적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의미가 있다. 이는 근대 여성이 공적영역, 즉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려는 근대적 주체성의 형성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근대적 주체성이란 주로 소수 엘리트 여성의 전유물로 (가치 없는) 육체/가사노동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와 병행한다. 이렇게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해 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타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한다. 직접 수행하는 노동의 고단함을 몸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테다. 따라서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의 양을 평가한다면, 성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빈곤 시기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워냈던 삶의 경험으로 산업화세대 대다수 구술자에게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해석 또한 타당하다.

“거기는 물도 안 나왔어요. 물도 안 나와서 높은 지대에서 물을 안식구가 새벽잠 설치 가면서 물지게로 지어다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랬던 거로 기억해요. 아마 내가 약간 도움을 줬겠지만, 제가 거의 안하고 안식구가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건 몰랐어요. 철이 없고,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 실제로 저 사람이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큰 싸움 없고 큰 갈등 없이 살아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 하죠.”

현재 아내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남성구술자의 이야기다. 구술자와 아내는 봉제공장, 미싱 임대업을 같이 해왔다. 그리고 맡겨드리었던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시동생들을 포함한 일곱 식구를 위한 가사노동을 혼자 감당했다. 이 아내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당시 여성구술자들의 하루는 보통 새벽 4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온갖 일들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었던 가사노동 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때문에 대다수 여성구술자들은 시나브로 자신의 노동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유지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현재 남편에게보다 자신에게 더 잘하는 성장한 자녀와 맺는 좋은 관계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향유된다. 말로 분명히 가치를 표현했던 남성구술자와 비슷하게, 다른 남성구술자들도 당시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가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인정한다.

## 2) 전업주부 이념에 함축된 가사노동 가치와 그 가치 실현의 비현실성

우리사회에 전업주부 개념은 식민지 조선시대 ‘신여성’ ‘가사노동’ 담론과 함께 ‘서구화’ ‘근대화’의 이미지로 도입되었다(김경일, 2012; 김혜경, 1999). 그리고 1950년대 전근대적 젠더관계가 근대적 관계로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현모양처 이념을 기반으로 ‘제도로서의 (전업)주부’가 탄생했다(김현주, 2007). 전근대사회 가족관계에서 여성은 가문의 며느리로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한편, 근대 가족관계에서는 자유연애와 사랑으로 결혼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합리적·효율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과거 “하인의 일”이었던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로 규정되었고(김혜경, 1999: 175), 주부는 위대한 모성을 지닌 전인교육의 담당자로(김현주, 2007) 가정의 참주인으로 격상(김혜경, 1999: 175) 되었다. 이런 과학적인 가사노동, 효율적으로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 담론은 여성에게 자기정체성과 자존감을 제공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김혜경, 1999: 176). 이런 담론은 엘리트 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근대적 성별분업을 이룰 수 없는 저발전의 식민지 경제조건에서 당시 대다수 여성들의 삶과 괴리되었다(김경일, 2012; 김혜경, 1999). 이는 본 연구 초기산업화세대 대다수 구술자들의 구술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엘리트 계층이 호응했던 가사노동 담론의 비현실성은, 우리나라 최초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나혜석의 단편소설「경희」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 서정자(1997)는 남성의 눈으로 하인의 가사노동을 보는 소설 속 주인공 여성 엘리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낸다. 서정자(1997: 31)는 이 소설에서 작가가 신여성에 대한 나쁜 사회적 평판을 바꾸려는 계몽적 의도로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신여성을 내세웠지만, 그 신여성에게 가사노동이란 여전히 ‘당신들의 일’에 머물러 있는 계층적 차별을 읽어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 이외 다른 가치를 즐기는 신여성과,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그 가치 실현의 비현실성에 주목한다. 소설에서 주인공 경희는 (가사노동)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즐긴다. 그러나 경희가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일’을 본인이 원할 때 잠시 할 뿐, 물질적 가치 생산이 경희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다수 여성들에게 경희의 삶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본 연구 구술자들 중에선, 1952년 서울에서 비교적 유복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구술자가 유일하게,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가사노동의 가치, 전업주부에 대한 희망 등을 구술한다. 이는 구술자가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근대 가족제도에 대한 담론이 대중화되는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술자에게 결혼은 근대적 의미의 결혼, 즉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다. 비록 구술자의 실제 결혼생활은 사랑에 기반하진 못했지만, 전업주부란 근대적 성별분업을 향한 적극적 선택이었다. 당시 구술자가 소개 받았던 현재 남편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문패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이를 구술자는 전업주부로 살 수 있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미스 때 영화를 보러가요. 그러면 2층집에서 사모님들이 이렇게, 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알뜰하면.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을 빨리 승낙했죠”라는 구술은, 구술자에게 전업주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업주부 삶에 대한 희망과 다르게, 구술자는 바둑과 음악활동에 빠져 살았던 남편을 대신해, 온갖 일을 하면서 (공장, 부업, 가게 등)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했다. 두 아들을 다 결혼시킨 현재, 자신이 결국 해냈다는 자긍심도 구술되지만, 전업주부와 부양자남편으로 구성되는 근

대가족이란 이념형과 멀었던 자신의 삶을 엉터리 삶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살림만 했다면, 내 식구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그게 어떤 영향이 가고 그걸 연구해서, 모든 생활에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안돼서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이란 구술은 가사노동에 대한 근대 담론,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런 근대 전업주부 가사노동 담론을 충실히 받아들인 구술자는 근대 가사노동이 답아야 할 가치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 한다. “어떻게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돈으로 따져요, 내 사랑이 흐르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가사노동이 얼마다 하는데, 조물주가 자연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안될 것 같은데”라는 구술은, 근대 모성담론에 바탕한 사랑의 수행인 가사노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어머니/여성에게서 흘러야 하는 조물주가 정해 준 질서다. 행위자가 향유해 기꺼이 실천하는 윤리적 가치가(Van Staveren, 2007)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 유교사상을 인간의 도리로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외부에 자연법으로 존재하는, 여성에게 역할로 강제되는 규범이다. 즉 앞서 개념 정의에서 서술했듯이, 모성에 기반한 사랑은 가치 향유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와 다르다. 물론 모성에 고정된 것으로 여겨진 사랑과 이의 실천으로서 가사노동 수행이란 근대초기 이념적 가사노동과 다른, 돌봄을 나누며 향유하게 되는 가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기 위해선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절에선, 이런 근대적 가사노동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넘는 가치는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2. 민주화세대: 불분명한 체현된 가치 vs.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

민주화세대가 체현한 가사노동 가치에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금전적으로 환산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몸은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관습적 지식에 의한 가치의 평가절하와 몸에 체현된 상당한 가치라는 초기 산업화세대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방향은 다르지만, 행위자 외부에서 제시되는 지식과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지식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둘째, 성장기 경험을 성찰하면서, 부모세대에게

받지 못했던, 정서적 돌봄·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살뜰한 지도 등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 향유를 욕망한다.

### 1) 명확한 금전적 가치와 불분명한 체현된 가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 환산 방법은 다양하고 이에 따라 환산된 가치는 차이가 있다. 가사노동자 임금, 요리사 또는 보육교사 등 그 일을 시장노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월급, 또는 평균임금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된다 (Budlender, 2008: 35). 구술자들은 가치 환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환산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 스스로 유급가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일인당 국민소득을, 또는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기도 한다. 학문적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는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가족의 물질적 삶에서 가사노동의 종속성을 드러낸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란 질문에 대부분 구술자들은 “그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월, 백만 원, 이백만 원 된다고 하던데”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통 그보다 높게 환산한다. 즉 백만 원으로 환산되는 가사노동 가치는 단순한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을 환산했을 때로 인식하는데, 이는 실제 유급가사노동자들이 주 2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 급여 수준과 비슷하다.

자녀양육을 위해 유급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한 살과 네 살 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는 아이돌봄을 도와주는 이웃할머니를 고용했는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하루 4시간, 20일 기준으로, 월 팔십만 원을 지불한다. 할머니가 둘째 아이를 돌봐주는 동안 구술자는, 구에서 분양받은 텃밭을 가꾸거나, 첫째 아이를 데리러 간다던가, 첫째와 장을 보러 가는 등 첫째 아이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낸다. 구술자는 이런 경험과 입주가사노동자에게 보통 이백만원에서 이백사십만원 정도 월급을 지불하는 이웃들의 경우를 고려해, 본인의 가사노동을 월 삼백에서 사백만원 정도로 환산한다. 구술자는 “저는 다 만들어 먹이고 만들어 입히니까 더 많겠쎬. 한 3-400 되겠쎬. 그냥 일반적인 것은 200만원.” 라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구술자들은 대략 월 2-300만 원 정도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데, 전업남편의 아내는 가장 적게 60만원으로 환산했다. 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일인당 국민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나눠 대략 5백만 원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



다. 전업남편의 경우, 한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유식도 모두 만들어 먹이고, 초등학교까지 홈스쿨링을 하는 등 실제로는 여성구술자들에 비해 상당한 양의 가사노동을 수행했다. 다른 누구보다 가사노동을 열심히 잘 해왔다는 것을 아내도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느끼는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이 수행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인터뷰 당시 자녀가 이미 커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내가 가장으로써 돈 버는 역할에 지쳐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업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른 구술자들과 비슷하게 평가하지만, 500만 원을 준다 해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돌봄의 가치는 애정·관심·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현되는 가치인데,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아내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에서 돌봄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대 구술자들이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측정하는 것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그 가치를 향유한다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구술자들의 인식이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물질적 생활을 위한 생산에서 가사노동의 종속적 위치다. 이는 가사노동을 (재)생산 영역에 위치 지으려 했던 가사노동 논쟁과(Gardiner, 2000; Himmelweit and Mohun, 1977; Kain, 1993; Molyneux, 1979) 다소 어긋난다. 구술자들이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환산을 위해서 항상 시장가치란 (가사노동자 임금, 국민소득, 남편 임금 등)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가치 평가는 결국 가사노동이 가족의 물질적 생활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 전업아내의 구술은 가사노동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구술자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남편이 장남으로, 결혼 초 남편의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고, 결혼 1년 후부터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 제사를 본인 집에서 20년 넘게 지내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구술자가 수행한 가사노동은 구술자 본인의 자녀와 남편을 위한 가사노동 이외 장남의 아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서 구술자는 “글세, 가사노동의 가치는 내가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한 비율도 되는 거 같아요. 남편이 100만원밖에 못 버는 데 내가 환산하니 100만원 넘는다고, 이걸 웃기잖아요.”라고 구술한다. 이렇듯 남편의 임금을 넘는 가사노동 가치 평가는 구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가사노동은 소비의 영역에서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 가사노동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산노동과 분리되지 않았다.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상당한

물질적 (사용)가치를 생산했다. 그러나 시장노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가사 노동은 소비에 기반한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사야하고, 수도물을 써야 하고, 전기를 써야하는 소비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 소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임금이 우선 필요하다. 때문에 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임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사노동 가치란 모순으로 여겨진다. 과거 전국가적 빈곤상태에서 학교에 못하는 자녀는 가사노동을 하던 동생을 돌보던 발일을 하던 무언가 노동을 해 가족의 물질적 삶을 도왔다. 그러나 현재, 전업남편이 수행한 홈스쿨링은 물질적 가치로 따졌을 때 가족경제에선 소비였다.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초등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데, 전업남편은 홈스쿨링에 필요한 것들을 아내의 월급에서 지출해야 했다. 이는 아내에게 아이가 원하는 교육의 생산보단 급여의 지출로 여겨져 남편이 수행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평가하는 한 이유가 되었을 수 있다. 이렇듯 시장경제가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임금/수입에 종속되고, 이는 구술자들이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인식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민주화세대에서 가사노동 가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실 체현된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스스로 저는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죠, 가사노동이 노동 강도를 따지고 일의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일반 직장인들 노동보다, 그것에 버금가는 급여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배우기는 하는데, 나 스스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라는 구술은 초기 산업화세대가 체현한 돈으로 따질 수 없게 큰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구술과 상당히 다르다. 이는 저발전의 경제상황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급 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가 발전된 사회에서 무급 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낮다는 (Budlender, 2008: 37-38), 즉 줄어든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의 어긋남이다. 산업화 세대와 다르게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은 가사노동 가치를 통계적 방법으로 환산해 인식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어긋남은, 첫째,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밝혀 가사노동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밝혀낸 연구들이 행위자들의 일상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지식과 불일치하는 과학적 지식·문화적 지식은, 몸의 체현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상을 이론화하는 몸의 사회학이 (Bendelow & Williams, 1998: 3) 인식론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

민주화세대의 가사노동 가치 체현에서 두 번째 특징은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이다. 이때 민주화세대가 욕망하는 비물질적 가치는 과거 초기근대시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합리적, 효율적,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란 담론이 내포한 ‘사랑’이라는 비물질적 가치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초기근대 유입된 가사노동 담론에 내포된 ‘사랑’의 가치는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규범으로 강제되는 도덕률에 기반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이 욕망하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행위자를 강제하는 도덕률을 내면화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체험과 그에 대한 성찰 속에서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다.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또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일상에서 향유할 때 정서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다. 이는 행위자가 체현하고 향유하는 덕목으로서의 윤리적 가치(virtual ethics)라는 앞서 제시한 돌봄의 가치와(Van Staveren 2007) 만난다.

아래 구술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구술이다. 이 남성구술자는 비록 맞벌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아이교육에서 놓쳤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가정교육도 포함되나요. 그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사실, 요즘 느끼는데 첫째놈한테 되게 미안해요. 우리 맞벌이 한다고 개를 어른시켰던 거. 그때로 안 돌아가지니까. 개가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걸 모르고 첫째라서 욕박만 지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술은 초기 산업화세대의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구술과 비슷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초기 산업화세대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가사노동 가치란 구술과 위 구술을 비교할 때, 두 가지 맥락에서 다소 다르다. 첫째, 초기 산업화세대의 구술은 몸으로 그 가치를 체현했음에 대한 구술인 반면, 위에선 그 가치를 놓쳤음을 구술한다. 둘째, 초기 산업화세대의 구술에 비해, 위 구술은 아이 교육으로 초점이 좁혀진다. 즉 아이의 몸을 성장시키는 물질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아이와의 소통을 놓쳤고 아이가 어린시절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비물질적 가치가 초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사회에서 육체적인 가사노동보다 아이 돌봄에 더 시간을 쏟는 변화를 포착해 가사노동이란 어휘 대신 ‘돌봄(care)’이란 어휘로 바뀌는(Gardiner 2000: 96-99; Himmelweit,

2000) 학문적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때 돌봄은 행위로서의 돌봄보다 가치로서의 돌봄과 관계된다. 현재 세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구술자는 어린시절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돌봄의 가치를 그리워하며, 아이에게 본인이 욕망하는 가치를 주고 싶어 한다.

*“한집에 살았어도,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새벽에 나가고 와서 밥하기 바쁘고, 그래서 좋은 엄마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 엄마가 없이 컸단 느낌이 있어서. 아빠랑 엄마랑 비슷한 존재, 돈 벌기 위해서. 저 첫 생리하고 이럴 때 엄마가 전혀 몰랐거든요. 여자로서 성장의 단계가 있고,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때마다 케어를 못 받고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는 그런 외로움을, 니가 손을 내밀면 엄마는 네 손이 닿는 곳에 있을게. 그런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줄게.”*

위 구술자가 받지 못했던 정서적 돌봄은 구술자에게 외로움의 정서를 남겼다. 그 외로움은 때때로 구술자의 일상을 어둡게 해, 활기차게 변영하는(fourishing) 일상을 영위하기 보단 그녀를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현재 구술자가 전업아내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 이유다.

다른 전업아내 이야기다. 딸 한명을 키우는 구술자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학업계획을 짜주고, 아이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고, 친구들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래 아이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아이가 최상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생활한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우선하는, 학업적 성취에 기반해 물질적 성취를 획득하게 하려는 중산층의 도구주의적 가족전략으로 여겨진다(박혜경, 2008). 그러나 이 여성구술자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책읽어주고 노는데, 어머님 댁에 맡기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더라구요”라는 이야기에서 보이듯, 아이의 시간을 다른 질로 채워주고픈 욕망이었다. 현재 아이에게 성적이 중요한 이유도 물질적 성취와 조금 결을 달리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학년 입학시켰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아이들도 엄마들도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구나, 공부를 잘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기회도 오더라구요.... 살아보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모든 능력을 갖춰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 구술이 보여주듯, 좋은 성적은 내성적인 아이가 친구를 사귄 수 있게 해 주고, 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구술자가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학업성취와 연결되는 안락한 삶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물질적 가치만을 중심에 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Klamer, 2017; Van Staveren, 2001),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만을 중심에 둔 기존 논의들이 구술자들이 욕망하는 다른 가치들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친구관계를 위해, 선택을 넓혀주기 위해 등의 비물질적 가치를 아이에게 주기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했지만, 구술자 본인이 이런 선택을 기쁘게 향유하는 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이에게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구술자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마음 아팠던 경험과 그때 자신을 비판했던 남편의 태도가 상처가 되었다. 현재 집을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이 불만스럽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으로, 아이들은 결혼을 아주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이 성적을 중심으로 일상을 배치하는 구술자도 아이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저희 아이는 두 개가 다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있고, 가정생활 있고,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해서 그런지, 인생에서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한테도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결혼이 꼭 필수 과정은 아니고, 이이를 낳는 것이 꼭 필수과정은 아니라고. 제가 아이에게 너무 몰입해서 키우니까 제 아이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할까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는 너무 즐거웠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설명을 하려고,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구술자는 아이를 몰입해서 키우는 삶이 즐거웠다고 이야기 하지만, 위 구술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 보며, 꼭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반복한다. 이 되새김은, 다른 길도 좋았겠다는 미련을 담고 있다. 비록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런 아쉬움들은 구술자 본인의 선택을 스스로가 풍족하게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구술자가 느끼는 아쉬움은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도 구술자가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 수혜자로서 자녀들의 가치 체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해 이 부분을 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에 대해 폭넓은 후속연구가 이어져, 가사노동 가치 체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전업주부 구슬자들의 구슬은 성별분업에 기반해 자녀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주려 했던 선택과 사회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고 싶은 후기근대 의식(Ochiai, 2014: 210-217)이 충돌함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뷰 당시 1살 3살의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구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한다. 앞서 만들어 입히고 직접 음식을 하는 본인의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구슬자는 “만들어 입히면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슬자 본인이 그 가치를 향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아이 옷을 만드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히고 싶은 욕망의 실현이다. 이때 옷은 몸을 보호하는 물질적 가치를 넘는다.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할 때보다 더 싸게 옷을 만든 만큼, 본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더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구슬자가 만든 옷은 구슬자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애정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라는 관계, 둘 사이 유대감이란 상징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구슬자가 만든 옷을 입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를 보는 순간, 구슬자는 그 옷에 담긴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며, 미소 짓게 된다. 가치를 향유하며 미소 짓는 순간, 그 가치는 구슬자 몸에 새겨진다. 만약 아이가 구슬자가 만든 옷을 입기 싫어한다면, 구슬자는 옷에 담긴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아이가 그 옷을 입기 싫어하면서도 입는다면, 옷에 담긴 물질적 가치는 아이가 옷을 입고 소비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옷을 입고 입기 싫다고 투덜대는 아이와 관계에서 구슬자가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긴 어렵다. 돌봄이란 비물질적 가치는 구슬자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향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텃밭에서 배추를 키워 김장도 하는 구슬자에게 음식을 직접 하는 이유는 좋은 식습관을 아이가 가지길 원하기 때문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함이다. “아침은 오늘도 나물 주말에 해놓은 걸로 밥 차려줬거든요. 안 그러면 신랑이 하루 종일 조미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 저도 직장생활해보면, 조미료 있는 음식 하루 세끼 먹으면 진짜 그날 훨씬 더 피곤해요. 저한테 가사는 건강이죠. 내가 그나마 식구들한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슬한다. 과거 나물은 빈곤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 준비하는 재료였을 테다. 그러나 현재는 손이 많이 가지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웰빙(well-being) 음식이다. 이때 시장에서 조리된 나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나물을 준비한 만큼 구슬자가 본인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란 물질적 가치는 아이와 남편이 나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 즉 돌봄의 가치는 그 나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다고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소통을 주고받는 순간 향유된다. 만약 아이와 남편이 애써 준비한 나물을 즐겁게 먹지 않는다면, 구술자가 나누고 싶었던 돌봄의 가치는 향유되지 못한다.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구술자는 더 이상 나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 구술자가 향유하고 싶은 돌봄의 가치는, 모성에 기반해 구술자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흐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 구술자는 남편과 본인 각자의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줄곧 주말부부로 지냈다. 때문에 구술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식구가 한집에서 지낸지, 둘째아이 육아휴직 포함해 채 2년이 안됐다. 이런 그동안의 생활 경험 때문에 구술자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하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엔, 구술자가 어린 시절부터 향유해온 중산층 가족문화가 배경이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만들기 강사 등을 하다, 현재 전시회를 하는 작가로 활동한다. 과거 손재주 좋은 어머니는 학교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소풍 때 매번 선생님 도시락을 아주 예쁘게 싸주셨다. 덕분에 구술자는 학교생활에서 항상 주목받았다. 당시 어머니도 가사노동자를 고용했었다.<sup>12)</sup> 현재 구술자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구술자가 한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구술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즉 구술자가 가진 경제력이 구술자의 선택을 진짜 선택으로 만든다. “그때는 사람을 쓰겠쎄.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신랑한테 집안 일 하는 시간에 아들하고 놀아주고, 차라리 일을 해 돈을 더 벌어서 아줌마 비용을 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구술자는 둘째 아이 돌보는 할머니를 고용하고 있고, 첫째 아이와 놀아주는 놀이교사를 주 1회 고용하고 있다. “청소를 하는데 해야 할 때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할 때, 음식도 이제 내가 꼭 해야 해서 하는 것과 해서 그걸 아이가 맛있게 먹을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건 다른 거 같아요.” 이 구술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위로 강제되는 가사노동이 아닐 때, 가사노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즉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가사노동 수행자가 향유하기

12) 본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다른 구술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대부분 구술자들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꺼린다. 이는 집이란 사적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과거 어려웠던 부모님의 삶에 대한 성찰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본 구술자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효율적인 선택으로 여기는데, 이는 구술자가 이미 익숙한 중산층 문화이기 때문이다.

위해선, 가사노동 수행이 선택이어야 함을 함축한다. 그리고 구술자가 비물질적 가치를 기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가사노동을 나누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일부 가사노동을 전가할 수 있는 경제력에 의존한다.

이 절에서 보았듯이, 민주화세대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과학적 지식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으로 평가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체현하지는 못한다. 과학적 지식과 몸이 체현한 지식의 미끄러짐 사이에 비물질적 가치 향유에 대한 이 세대의 욕망이 있다. 이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하는 양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풍요에 초점을 뒀 일상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향유는 미흡했다. 둘째, 전업아내들의 경우, 자녀들과 돌봄의 가치를 일상에서 향유하길 욕망하고 그를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포기했던 삶의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런 아쉬움으로 스스로는 비물질적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전업남편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무능력이 돌봄이란 비물질적 가치 향유를 방해한다. 즉 (성별)분업 하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욕망·필요는 비물질적 가치 향유와 어긋난다. 셋째, 가사노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술자의 선택을 온전히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이다. 이는 가사노동 시장화에 따른 계급 불평등과 만난다. 가령 저소득층 여성들은 유급가사노동자가 되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이중의 가사노동을 감당한다(이영범 & 남승연, 2009). 해외로 이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받기도 한다(Parreñas, 2001). 즉 각 가정의 젠더갈등이 지구적 차원에서 계급갈등으로 이전되면서 유급(이주)가사노동자들은 정치경제 체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게 된다(Parreñas, 2000). 이런 세 가지 양태는 결국 민주화세대가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미흡하게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온전히 향유되지 못하는 비물질적 가치는 적어도 가족의 안녕(well-being)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분석했다. 이는 가사노동/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가사노동의 정치경제적 기여를 분명히 해 사회적 유의미성을 밝혀냈지만, 과연 행위자들은 일상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 정부 영역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시장, 정부,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행위자는 같은 가치를 향유하게 되는 것인지 고려되지 않은 채, 상호 호환 가능한 것으로 질문 없이 가정되었다. 본 논문은 그 호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으로 행위자가 향유하는 가치를 분석해, 질문에 대한 부분적 답을 모색한다.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으로 행위자가 향유하는 가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하는데, 본 연구 두 세대가 체현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해, 일상에서 체현하는 주된 가사노동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에서 비물질적 가치로 이동한다. 이는 이 연구 구술자들이 살아온 시간 범위가 넓어, 세대별로 상호작용하는 외부조건의 차이가 가치 체현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두드러진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대 내 성별 또는 경제력에 의해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현하는 가치 차이는 이 글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세대가 구술 자료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범주이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체현된 가치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보다 유용성이 크다. 두 세대를 살펴보면 경제적 저발전의 맥락에서, 초기산업화세대에게 가사노동은 물질적 가치 생산과 그 가치를 사용해 가족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때 가사노동의 가치는 유교 문화적 지식에 의해 평가절하 되지만, 가족의 삶이 유지되는 것으로 구술자들의 몸은 그 가치를 체현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발전된 조건에서, 민주화세대에게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는 과학적 지식으로 구술자들에게 제시되지만, 구술자들은 그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체현하지 못한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삶에 필요한 물질적 가치의 대부분은 시장·정부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신, 구술자들은 외로움 등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욕망한다.

그러나 둘째, 민주화세대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온전하게 향유되지 못한다. 맞벌이가족의 경우 경제적 풍요를 위해 아이의 정서적 돌봄을 놓쳤고, 가사노동 수행의 불평등 또는 직장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전업주부는 본인이 선택한 비물질적 가치를 스스로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단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원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구술자만이 본인이 선택한 비물질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는 젠더갈등을 계급갈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경제력이 있는 소수만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다수 구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이렇게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미흡하게 체현/향유된다.

행위자가 일상에서 향유하는/하고 싶은 가치에 대한 분석은, 행위자의 욕망과 바람을 담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등 정책의 핵심 의제를 담은 용어의 변화는 행위자의 욕망과 바람이 제외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이 가정을 돌보면서 자아실현의 의미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 친화적 정책’은, 남성의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위자를 담지 못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모두가 가정을 꾸릴 것이라 전제되지만, 앞선 장에서 자녀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거나, 자녀를 안 낳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구술자들의 욕망을 담지 못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행위자 개개인이 일상의 조화를 이룰 것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행위자를 담고 있지만, 그 삶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에 대해 질문을 담았는지 의문이다. 2018년 초,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이 임명된 현실은, 일과 삶의 시간적 혹은 물질적 균형은 이루어져도, 일과 삶에서 향유할 가치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가치의 불균형은, 본 연구 민주화세대가 향유하고자 욕망했던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가 과연 시장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 글에서 다른 것으로 정의한 돌봄 행위와 돌봄 가치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론적 경험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행위자가 일상에서 체현한 가치에 초점을 두어, 가사노동 연구와 관련해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이론적으로, 첫째, 본 연구는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몸이 체현한 지식의 어긋남을 포착해, 몸의 사회학이 인식론으로 유의미함을 드러냈다.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이 어긋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남은 언제나 변화과정에 있는 일상의 한

지점에서 표출되고, 오히려 변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어긋남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방적 지식에 머물고 무엇보다 행위자를 담지 못한다. 행위자를 담는다는 것은 고전적 경험주의 전통에 따르듯 감각적 경험을 세고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현한 삶의 경험을 지식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때 외적조건에 강제되는 행위자가 아니라, 향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바람을 껴안고 그 조건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행위자가 드러난다. 가사노동 수행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던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적 발전이라는 외적 조건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욕망하게 된 구술자들이 향유하고 싶었던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포착할 수 없었다. 사실, 몸의 체현을 언어로, 일상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들을 포착하기 위해선, 풍부한 이론적 논의들과, 행위자가 일상에서 향유하고 있는 또는 놓치고 있는 가치들을 드러내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행위자를 담은 정책 생산으로 정책대상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비로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집안일, 가사노동, 돌봄(노동), 재생산 노동, 공급노동 등 많은 어휘들이 주조되었지만, 앞서 이 글에서 쓰는 가사노동 개념에 대한 서술에서 보았듯이, 어떤 어휘도 현재 사회에서 행위자가 가사노동으로 체현/향유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 가령, 재생산노동이란 어휘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노동에 맞선 개념으로, 정치경제학적 필요를 담아낸 어휘다. 그러나 그 개념 어디에도 비물질적 가치를 포함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 생산을 의미하는 노동으로 자신을 키워던 어머니의 ‘그 무엇’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구술자가 표출했던 심리적 거부감처럼, 인간의 출생과 삶을 공장에서의 상품생산으로 치환한 것처럼 여겨진다. 앞서, 여성구술자가 노점상에 나가면서 자녀를 위해 한상 가득 준비했던 밥상이, 가사노동, 지원노동, 돌봄(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비록 가사노동을 주된 어휘를 사용했지만 사실 가사노동이란 어휘는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주로 빨래, 음식, 청소 등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이란 어휘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는 구술자의 의미를 담아내지도 못한다. 이미 돌봄노동이란 어휘가 돌봄의 가치보다는 돌봄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부불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기존연구에서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향유하는 돌봄의 가치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반 스타베런(Van Staveren, 2001)이 이론화했듯이, 돌봄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영역에서 향유해야 할 가치이다. 각각의 어휘들이 그 어휘가 강조하는 초점으로 우리를 초대했고,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사노동 논쟁, 돌봄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들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자녀·가족·이웃과 밥 한 그릇, 삶의 한 조각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 무엇’을 개념화 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후속 논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되었지만,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본 연구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폭넓게 가사노동 수혜자들의 가치 체현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일상의 삶에서 가치의 향유란, 더군다나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때, 상대방이 그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는가는 곧 행위자의 가치 향유와 직결된다. 가령, 앞서 구술자가 아이가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고 만드는 음식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맛있게 먹지 않을 때, 맛있게 먹지만 표현하지 않을 때,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고맙다고 표현할 때, 이 세 경우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향유하는 가치는 다를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할 일로 강제되어서,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세 경우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향유하는 가치도 다를 것이다. 이렇듯 삶은 언제나 구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구술자들이 향유하고 싶었던 비물질적 가치가 어떻게 일상에서 체현되는지, 당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세밀히 분석할 때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정부,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향유하고 체현되는 가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의 시장화 사회화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러나 일상의 삶에 꼭 필요한 가치를 논의·정책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이수(2011). “남성부양자 가족의 균열과 지속”.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4호, 123-145.
- 구은정(2019). “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여성연구*, 제100권 제1호, 191-226.
- 권태희(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1-20.
- 김경일(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 역사.
- 김남옥(2012). “몸의 사회학적 연구 현황과 새로운 과제”. *사회와이론*, 제21권 제1호, 289-326.
- 김은정(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6권 제1호, 64-100.
- 김정선(1994). “성별분업”. *여성과 사회*, 제5권, 289-296.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4호, 37-51.
- 김현주(2007).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권 제2호, 387-416.
- 김혜경(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한국여성학*, 제15권 제1호, 153-184.
- 보건복지부(2012.8.29.) 보도자료.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박혜경(2008). “중산층 기혼여성의 경험 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159-196.
- 서정자(1997). “가사노동 담론을 통해서 본 여성이미지-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19권, 23-51.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153-187.
- 윤석명(2013). “노인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06호, 7-17.
- 이영범 & 남승연(2009).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2호, 99-126.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호, 31-52.
- 정재영(2014). “20 세기 후반 양반의 성격변화와 재실의 건립”.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7권 제1호, 103-137.
- 조순경(2001). “유가 사상과 성별 분업”. *여성학논집*, 제18권, 177-193.
- 한국일보(2006.10.17.). “[강준만 칼럼]비동시성의 동시성”  
<https://news.v.daum.net/v/20061017183507349?f=o>에서  
2019.3.15. 인출
- 황아란(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국제정치*, 제25권 제3호, 191-217.
- An, Mi-Young(2012). The Changing Shape of Care-Time Diamond: Social Care Expansions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19(2): 137-161.
- Bendelow, G. A., & Williams, S. J.(1998). *The lived body: Sociological themes, embodied issues*. London : Routledge.
- Bryman, A.(1984). The Debate ab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 Question of Method Or Epistem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 75-92.
- Budlender, D.(2008). *The Statistical Evidence on Care and Non-Care Work Across Six Countries*.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Chang, Kyung-Sup.(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 : Routledge.
- Cho, Mi-Kyung.(1994). Korea: The 1990 Family Law Refor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Women. *University of Louisville Journal of Family Law* 33: 431-444.
- Davis, J. B.(2003). *The theory of the individual in economics: Identity and value*. London : Routledge.
- Fredrickson, B. L.(2013). *Love 2.0. Creating happiness and health in moments of connection*. New York : PLUME.
- Fredrickson, B.(2009). *Positivity*. New York : Three Rivers Press.
- Gardiner, J.(2000). Domestic Labour Revisited: A Feminist Critique of Marxist Economics. In S. Himmelweit (Ed.). *Inside the*

- Household from Labour to Care*(pp. 80-101), London : Macmillan.
- Hammersley, M.(1995). Theory and evidence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y and quantity*, 29(1), 55-66.
- Heller, A.(1984). *Everyday Life*. Sydney: The Law Book Company of Australasia.
- Himmelweit, S.(2000). *Inside the Household: From Labour to Care*. London : Palgrave Macmillan.
- Himmelweit, S.(2007). The Prospects for Caring: Economic Theory and Policy Analysi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1(4): 581-599.
- Himmelweit, S. & Mohun, S.(1977). Domestic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1): 15-31.
- Kain, P.J.(1993). Marx, Housework, and Alienation. *Hypatia* 8(1): 121-144.
- Klamer, A.(2017). *Doing the right thing: A value based economy*. London : Ubiquity Press.
- Koo, E.(2018). “ Where is the value of housework?”: re-conceptualizing housework as family care activity. ISS PhD Thesi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Koo, E.(2019). Women’s subordination in Confucian culture: Shifting breadwinner practic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3): 417-436.
- Mannheim, K.(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pp 276-322), London : OUP.
- Mead, G.H.(1967). *Mind, Self &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W. Morris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lyneux, M.(1979). Beyond the Domestic Labour Debate. *New Left Review*, 116(3): 27.
- Nam, Sang-Hui.(2010). The Women’s Mov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amily Law in South Korea. Interactions between Local, National and Global Structures.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1): 67-86.

- Neysmith, S.(2012). *Beyond Caring Labour to Provisioning Work*.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Ochiai, E.(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Sociology*, 29(3): 209-228.
-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Paris: OECD.
- Pascall, G., & Sung, S.(2007). *Gender and East Asian welfare states: From Confucianism to gender equality*. Working paper of East Asia, Fourth Annual East Asian Social Policy research network (EASP) International Conference.
- Parreñas, R.S.(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ñas, R.S.(2000).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 Society*, 14(4): 560-580.
- Pfau-Effinger, B.(2004). Socio-historical Path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 an Explanation of Cross-National Differen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3): 377-399.
- Polanyi, K.(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 Razavi, S.(2007).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in a development context: Conceptual issues, research questions and policy options*. Concept Paper, UNRISD Project on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 Sandelowski, M.(1993). Theory unmasked: The uses and guises of theory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6(3), 213-218.
- Sevenhuijsen, S.(2004). Trace: A method for normative policy analysis from the ethic of care. In Sevenhuijsen, S., & Švab, A. (Ed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Contribution of the Ethic of Care to Social Policy in Some New EU Member States*(pp.13-46), Peace Institute, Institute for Contemporary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 Shilling, C.(2004). *The body and social theory*. Newcastle : Sage.
- Shilling, C.(1997). The undersocialised conception of the embodied agent in modern sociology. *Sociology*, 31(4), 737-754.
- Wehrle, M.(2016). Normative Embodiment. The Role of the Body in Foucault's Genealogy. A Phenomenological Re-Readi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7(1), 56-71.
- Yoon, Ja-Young.(2014). Counting Care Work in Social Policy: Valuing Unpaid Child-and Eldercare in Korea. *Feminist Economics*, 20(2): 65-89.
- Van Staveren, I.(2001). *The Values of Economics: An Aristotelian Perspective*. London : Psychology Press.
- Van Staveren, I.(2007). Beyond Utilitarianism and Deontology: Ethics in Economic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9(1): 21-35.

## Abstract

## Embodied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Eun Jung, Koo\*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economic value of housework have proved the significance of housework in society through clarifying its impact on political economic life. However, due to the lack of studies on the actors' embodied value of housework, there is little comprehension on how actors enjoyed and recognize the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Therefore, relying on the concepts of embodied sociology and value-based economy, this study analyses, employing 72 interview texts,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generated by the interactions of actors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aying: "value, what value, I don't know such a thing" goes, the early industrialization generation did not recognize the value of housework that women deserve and took it for granted. Nevertheless, under the national poverty by economic underdevelopment in then Korea, without women's work that includes housework, maintaining family and bringing up children would have been impossible. In this context, this generation revealed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saying "honestly, to measure the value with money is impossible." By contrast, democratization generation has obviously recognized the value of housework through studies and mass-media. However, unlike their consciousness, their embodied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is little, which is revealed in their story, "Yet, I have not found the value myself." In the meantime, reflecting the lack of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who were so busy for a living, they desire for the emotional value of housework such as giving emotional safety or consolation to childre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e mismatch between actors' embodied value of housework and the value defined by existing studies and the actors' desire for emotional value of housework beyond its material value. However, because all interviewees are adult care-givers, I expect that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of care receivers will be discovered by follow-up research.

**Keywords :** housework, embodied value, generation, emotional value, material value

---

\* Lecturer, Dongguk University, Seoul